



## 5C로 새롭게 조성된 환경, 작업환경 변화시켜

- SPP조선 -

취재 | 최종덕 기자



옥 정 준 부장

### 조선업 유동인력만 줄여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에서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사항은 극도로 심각한 유동인력입니다. 1년 평균 120% 정도의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며 심한 경우 1년에 15번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경기가 좋지 않아 예전만큼의 유동인력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0~50%는 여전히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다보니 안전교육을 시키고 우리만의 안전시스템에 맞춰 일을 할 만 하면 다른 근로자가 오는 바람에 항상 안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전의 기초를 닦을 겨를도 없이 이동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 조선업에서의 안전은 항상 취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에서 안전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SPP조선에서 근로자 중심으로 의식을 잡는 일에 적극적인 것도 조선업종의 안전의 열쇠가 근로자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확보를 통해 조선업이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우리SPP조선부터 앞장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선박블록 제조사업을 시작한 SPP조선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신조사업에 뛰어들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중견조선소로 성장한 SPP조선은 최근 전반적인 조선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성실함의 결과일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높은 품질력으로 신뢰를 쌓고 내적으로는 안전으로 신뢰를 쌓은 SPP조선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여타 조선기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5S 활동을 SPP조선만의 활동으로 탈바꿈시킨 5C활동, 철저히 작업환경을 개선시킨 결과 경남 통영 산업안전공단내에 있는 조선소 중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안전한 조선소를 일궈낼 수 있었다.

### 사전 안전작업승인으로 위험작업 안전하게

선박건조에 있어 주요공정이라 하면 강재를 절단하여 가공하고 다시 이를 조립하는 조립공정과 탑재공정, 의장공정, 도장공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공정으로 탑재공정을 꼽을 수 있다.

탑재되는 블록 자체가 수 톤 혹은 수십 톤에 이르는 중량물인데다가 크기도 거대하고 이를 이동시켜 용접하는 작업은 낙하, 전도 그리고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 또한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과 화기취급 작업은 폭발사고와 질식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위험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SPP조선에서는 모든 작업에 있어 사전작업승인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찾은 당일에도 페트롤팀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에 여념이 없는 환경안전팀원들, 안전한 작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이들의 모습에서 SPP조선이 통영 중선산업단지인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가장 적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 5C활동으로 안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5S를 SPP조선에 맞도록 안전측면을 극대화시켜 5C 활동으로 재구성하면서 SPP조선의 현장을 깨끗하게 탈바꿈시켰다.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지는 슬로건 아래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개선과 조치활동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한 5C활동은 점차 그 효과를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는 직장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정기적인 전사 캠페인활동으로 관리감독자 모두는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활동, 비상사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훈련 등 근로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자율적인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감성안전 중 동호회활동은 안전한 직장, 무재해 SPP조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해나가는 수단이다.

### 전사적으로 움직이는 안전활동, SPP조선의 안전문화 구축

SPP조선의 안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원 참가의 원칙이다. 이런 전원 참가 중 전사합동점검은 매월 1회 임원을 필두로 관리자와 협력사대표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발굴하고 발굴된 불안정한 요소는 해당부서에 통보되어 즉시 개선 또는 조치를 유도해 나간다. 또한 협력사에서도 월 2회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2주 동안 단 한가지만이라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작은 개선들이 쌓여 더욱 안전한 SPP조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안전에 대한 이곳 임직원 모두의 생각이다. 눈에 보이는 작은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며 미래에 닥칠 커다란 재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안전점검활동은 SPP조선만의 안전문화로 승화되어 안전으로 대표되는 조선소건설에 초석이 될 것이다. ☺